

<http://dx.doi.org/10.17703/JCCT.2019.5.4.243>

JCCT 2019-11-29

한국 간호대학생의 생명존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Life respect and will of Korean Nursing Students

박영희

Youngee Park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생명존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생명존중의지를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총 146 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자료분석 방법은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의 의미, 영적 안녕감, 죽음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세 요인의 설명력은 26.3%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생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영적 안녕감 수준의 향상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태도 즉, 죽음 불안 수준을 감소시킴으로써 생명존중의지를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을 구체적인 중재 요소로 포함한 생명존중의지 향상 중재프로그램 개발하여 간호대학생들에게 시행한다며, 간호대학생의 생명존중의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생의 말기에 있는 혹은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주요어 : 생의 의미, 생명존중, 죽음, 영적 안녕, 간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respect for life of nursing students and to prepare the basic data for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to establish proper awareness of the life of nursing students and nurturing it. This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A total of 146 nursing stude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e meaning of life, spiritual wellbeing, and attitude toward death as factors influencing respect and will for life.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three factors was 26.3%. Therefore, nursing students will be able to cultivate respect for life by increasing their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life, improving their level of spiritual well-being, and reducing their negative attitudes about death. Also, in order to improve the respect for life of nursing students,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life respect including the factors identified in this study. Ultimately, it is expected to grow into a nurse who can provide real help to patients who are at the end of life or who are dying.

Key words : Value of life, Respect for life, Death, Spiritual wellbeing, Nursing

*정회원,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접수일: 2019년 9월 17일, 수정완료일: 2019년 10월 11일
게재확정일: 2019년 10월 24일

Received: September 17, 2019 / Revised: October 11, 2019
Accepted: October 24, 2019
*Corresponding Author: gml34@dongguk.ac.kr

I. 서 론

간호는 생명존중 태도를 기본 소명으로 신체·정신·영적·사회적으로 건강 문제가 있는 환자의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선한 의도를 바탕으로 간호를 수행한다. 간호 행위는 곧 무엇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수반하며[1], 양질의 간호 제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또한 간호는 전 생애 동안 발생하는 인간의 건강 문제를 돌보기 위하여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는 학문이기에 간호의 모든 돌봄 행위는 생명존중 및 윤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2].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인간생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당면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은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죽어갔던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의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되고 있는 생명공학은 인간생명에 관한 또 다른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학의 발달은 인간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직업 활동과 연계된 수많은 생명의료의 문제들을 만들었다. 즉 낙태, 안락사, 치료중지, 뇌사판정의 문제에 당면하면서 인간다운 품위와 현실적 가치관 사이에서 윤리적 판단 및 윤리적 행위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3].

이러한 생명과 관련된 논쟁에서 특히, 죽음을 앞둔 환자의 간호에 있어서는 인간생명에 대한 존중 및 확고한 윤리의식의 정립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4]. 하지만 간호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를 간호하며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생명 유지를 위한 책임 사이에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5].

개인이 갖는 생의 의미가 어떤가에 따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다. 또한 죽음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불안과 공포를 갖고 삶의 연장으로써 죽음을 맞이함에 있어 환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생의 의미를 추구하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전인간호를 실시해야 하는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하겠다[6]. 또한 간호사가 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죽음에 대해 불안해한다면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의미가 낮아진다[7]. 그러므로 간호의 기본 소명이며 간호윤리의 해결에 기본인 생명존중의 의지에 생의 의미,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 안녕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는 중요하다고 하겠다. 간호사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 환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의료서비스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8].

이러한 맥락에서 장차 간호사가 될 간호 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이나 전공수업 중 죽음을 앞둔 환자를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임상실습 시 간호수행에 참여하게 되면서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은 생명과 관련된 인식에 따라 죽음을 해석하고 죽음에 대한 태도에 반영된다[9]. 또한, 추후 임상실무현장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를 간호 시 다양한 윤리적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4]. 그러므로 생명의료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간호사 뿐 만아니라 간호대학생들이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생각하고 올바르게 가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생명존중 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존중의지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연장으로서의 태아 그리고 타자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부로 생명을 끊지 않겠다는 의지와 생명이 위독한 타자를 위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도 좋다는 의도로 나타날 수 있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태도다. 이러한 생명존중의지는 죽음에 대한 태도의 여러 측면의 영향을 받아 형성될 것으로 생각된다[10].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죽음과 생명윤리의식에 대한 단일 변수 수준의 영향력[6, 11, 12]을 확인하거나 보건 간호 계열 학생과 비보건 간호 계열 학생의 인식 또는 태도의 차이[2]를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생의 의미,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 안녕감이 생명존중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생명윤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함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의 의미,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 안녕감과 생명존중의지 정도를 파악하고, 생명존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유의수준 α 는 .05, 효과크기는 .10, 검정력은 .95 [13]로 계산하였을 때의 최소 표본 수는 132명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체의 민감성 등으로 인하여 높은 탈락률이 우려되어 160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자 등을 제외하고 최종 연구대상자는 146명이었다. 연구대상자 모집을 위해 해당 단과대학과 학과에 협조공문 발송하여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대상인 대학생들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보상 등의 순서로 설명하고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

- 만 18세 이상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

2) 연구대상자 제외 기준

- 정신과적 병력이 있거나 현재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자
-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자
- 연구자가 근무 중인 연구실시 기관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자

3. 연구도구

1) 생의 의미

생의 의미는 최순옥 등[14]이 개발한 46문항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의 범위는 46점에서 18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의 의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9였다.

2) 영적 안녕감

Paloutzian과 Ellison [15]이 개발한 영적 안녕감 척도를 박지아[16]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관적인 영적 안녕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20문항 6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12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86이었다.

3) 죽음에 대한 태도

Collett & Lester [17]가 제작한 도구를 서혜경[18]이 번역하고 심민경[19]이 비슷하고 중복되는 문항들을 축

소하여 총 20문항을 선정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심민경[19]의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0이었다.

4) 생명존중의지

생명존중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Inumiya [20]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했다. 이 도구는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7점 Likert 척도로 평가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존중의지가 높은 것으로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83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2)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생의 의미,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 안녕감과 생명존중의지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존중의지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4)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생의 의미,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 안녕감과 생명존중의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5) 간호대학생의 생명존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수집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유지된다는 점, 연구를 통해 어떠한 위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참여를 철회하더라도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추후 파일은 삭제되고 자료는 분쇄방법 등으로 폐기될 것이라는 점과 연구목적에 대하여 설명한 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발적인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자료를 수집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존중의지

간호대학생들의 생명존중의지는 학년 및 가족의 경제적 수준 그리고 부모의 생존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존중의지(N=146)

Table 1. Life respect and wil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6)

Variables	Category	M±SD	Respect for life and will	
			M±SD	t or F(p)
Gender	Male	37(25.0)	69.9±7.8	2.14 (.065)
	Female	109(75.0)	70.2±10.6	
Grade	1st	25(17.1)	58.9±6.5	1.73 (.003)
	2nd	36(24.7)	63.4±6.8	
	3rd	39(26.7)	67.7±7.3	
	4th	46(31.5)	70.69±9.4	
Religion	No	56(38.4)	66.7±8.8	2.36 (<.121)
	Yes	90(61.6)	72.0±6.9	
School grades	Higher level	39(26.7)	66.3±9.1	1.86 (.071)
	Middle level	65(44.5)	66.5±10.3	
	Lower level	42(28.8)	64.1±11.0	
Economic level of family	Higher level	45(30.8)	66.3±7.8	2.00 (<.001)
	Middle level	53(36.3)	64.7±8.6	
	Lower level	48(32.9)	63.7±8.5	
Parent survival status	Both parent survival	108(74.0)	72.1±9.6	1.94 (<.001)
	One parent survival	12(8.2)	70.2±8.0	
	Parent divorce	26(17.8)	67.3±9.7	

2. 측정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에서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생의 의미와 영적 안녕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 = .26, p < .012$), 생의 의미와 생명존중의지($r = .37, p < .001$) 사이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에, 죽음에 대한 태도는 생명존중의지와 유의한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 = -.65, p < .003$). 끝으로 영적안녕감과 생명존중의지($r = .14, p < .025$)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2. 측정변수의 서술적 통계(N=146)

Table 2. Scores of variables (N=146)

Variables	Min.	Max.	M±SD	Range s
Meanings of death	67	177	129.36±17.53	46~184
Attitude towards death	27	103	84.28±9.54	20~120
spiritual wellbeing	32	80	62.50±11.51	20~80
Life respect and will	35	84	70.36±11.37	12~84

표 3. 생의 의미,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 안녕감과 생명존중의지의 상관관계(N=146)

Table 3. Correlations of meaning of death, attitude towards death, spiritual wellbeing, and Life respect and will (N=146)

Variables	Meaning of life $r(p)$	Attitude towards death $r(p)$	Spiritual wellbeing $r(p)$
Meaning of life	1		
Attitude towards death	-.41 (<.180)	1	
Spiritual wellbeing	.26 (<.012)	-.17 (<.086)	1
Life respect and will	.37 (<.001)	-.65 (<.003)	.14 (<.025)

3. 생명존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 회귀 분석 결과 생명존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생의 의미($\beta = .28, p < .001$), 영적 안녕감($\beta = -.26, p = .035$), 죽음에 대한 태도($\beta = .05, p = .002$)로 확인되었으며, 영향 요인의 설명력은 26.3%였다(Table 4).

표 4. 생명존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N=146)
 Table 4. Factors influencing sub-scale of Life respect and will (N=146)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48.69	.17		6.75	< .001
Grade	.54	.02	.17	0.59	.554
Economic level of family	-.28	.05	.19	2.01	.125
Parent survival status	.06	.09	-.02	1.86	.360
Meaning of life	.77	.24	.28	1.42	< .001
Attitude towards death	.83	.01	.05	-2.14	.002
Spiritual wellbeing	.04	.08	-.26	.20	.035
F (p)	15.76(<.001)				
Adjusted R ²	.263				

IV. 논의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생명존중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의 의미, 영적 안녕감, 죽음에 대한 태도와 종교로 나타났으며,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은 생의 의미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의지를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생의 의미, 영적 안녕감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생명존중의지에 영향을 끼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간호사의 생의 의미, 영적 안녕감,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명존중의지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21]와 유사하다.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간호사는 죽음에 대한 불안 정도가 높아 죽음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태도로 인해 임종환자나 가족들에게 편안한 간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22]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타 과 학생에 비해 전공수업이나 현장실습을 하면서 죽음을 더 많이 경험한다. 죽음을 경험하면서 간호대학생은 죽음과정과 죽음 후 수행과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학과생활적응과 현장실습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23-25]. 또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불확실한 경우, 임종환자를 간호할 때 부담감이나 공포 및 불안감 등을 느낀다고 하였다[26].

김경혜 등[27]은 간호제공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임종환자 간호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고하여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간호사는 임종환자를 간호할 때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생을 조용히 마감할 수 있도록 간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죽음과 죽음 과정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확고히 정립함과 동시에 죽음에 대해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28]. 즉 간호사는 임종환자를 간호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가 되기 전 대학생 시기부터 미리 죽음 관련 교육 등을 통해 긍정적인 생의 의미를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 중재를 통해 현장실습에 앞서 죽음에 대해 이해하고, 삶과 생의 의미를 생각해 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이 죽음에 대한 인식을 확립한다면, 현장실습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현장실습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29, 30]. 뿐만 아니라 생의 의미 형성을 통해 간호학생의 생명존중의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생명존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의 의미와 영적안녕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였다. 간호제공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임종환자 간호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중요하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형성은 단시간 안에 이루기 어려운 것이기에 간호학생 때부터 삶과 죽음 관련 교육 등 필요하다. 삶과 죽음 관련 교육 중재는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생의 의미를 형성하고, 영적 안녕감, 죽음에 대

한 태도에서 죽음 불은 감소시키는 구체적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생명존중의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간호대학생에게 이와 같은 교육이 시행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여 임종환자 및 가족을 간호하는 역할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References

- [1] M.H. Kim, "Nursing Ethics Valu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5, No. 1, pp. 59-66, 2019.
DOI : 10.17703/JCCT.2019.5.1.59.
- [2] K.S. Lee. (2013). "The bioethical experience of nurses"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3] K.Y. Park, "Organ transplantation and biomedical ethic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education*, Vol. 3, No. 1, pp. 13-26, 2000.
- [4] Y.H. Kim, Y.S. Yoo, and O.H. Cho,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s toward Death of Terminal Patients", *Korean Society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16, No. 1, pp. 1-9, 2013.
- [5] A.K. Kim, and G.S. Park, "The study of meaning in euthanasia and hospice nursing among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7, No.3, pp. 379-390, 2000.
- [6] E.M. Hyun, "Effect of death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7, pp. 4220-4228, 2014.
DOI : 10.5762/KAIS.2014.15.7.4220
- [7] Cha, Y. R., A study on the nurses' attitude to death in Korea centering on university hospital in Jeollabuckdo province, Master's thesis. Wonkawang University, Iksan, Korea, 2016.
- [8] S.J. Park, and S.H. Choi, "A study on the degrees of death orientation and terminal care performance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3, No. 2, pp. 285-297, 1996.
- [9] J.G. Kim, S.M. Oh, E.Y. Cheon, and J.H. Yoo, "Factors influencing the attitude toward death in college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 pp. 676-683, 2016.
DOI : 10.5762/KAIS.2016.17.1.676
- [10] Y. Inumiya, and S.Y. Han, "A study on development of a view of life and death scale",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 Vol. 10, No. 1, pp. 31-82, 2004.
- [11] S.N. Kim, H.J. Kim, and S.O. Choi, "Palliative care education program including meaning in life on attitudes toward end-of-life care and meaning in lif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453-463, 2011.
- [12] I.S. Kim, "Effects of bioethics education on the consciousness of bioethics of freshman nursing and health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l. 14, No. 1, pp. 1-13, 2013.
- [13] F. Faul, E. Erdfelder, and A. Buchner,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pp. 175-191, 2000.
DOI : 10.3758/BF03193146.
- [14] S.O. Choi, S.N. Kim, K.I. Lee, and J. J. Lee, "Development of Meaning in Life Scale II",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5, pp. 931-942, 2005.
DOI : 10.4040/jkan.2005.35.5.931
- [15] R.F. Paloutzion, and C.W. Ellison, "Loneliness, spiritual welllbeing and the qualith of life", New York: John Wiley & Sones, pp. 224-236, 1982.
- [16] Park, J. A., Relationship to Resilience, Spiritual well-Being and Parent Attachment : Comparison among resilient adolescents, at-risk adolescents and competent adolescents,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02.
- [17] L.S. Collett, and D. Lester, "Fear of death and the fear of dying", *The Journal of Psychology*, Vol. 72, pp. 179-181, 1969.
- [18] H.K. Seo, "Attitudes of male and female older adults concerning death", Vol. 7, No. 2, pp. 89-102, 1990.
- [19] Shim, M. K., The Relationships between death anxiety and social support in the elderly people ,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Pusan, Korea, 2001.
- [20] Inumiya, Y., A study on development of a view of life and death scale and relationships among its elements,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2002.
- [21] J.H. Kang, and S.L. Han, "A study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 of death, attitude towards death, death concern and respect for life”,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16, No. 2, pp. 80-89, 2013.
DOI : 10.14475/kjhpc.2013.16.2.080.
- [22] M. Braun, D. Gordon, and B. Uziely, “Associations between oncology nurses’ attitudes toward death and caring for dying patients”, *Oncology Nursing Forum*, Vol. 37, No. 1, pp. 43-49, 2010.
DOI : 10.1188/10.ONF.E43-E49.
- [23] M.K. Cho,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4, pp. 311-320, 2013.
DOI : 10.14400/JDPM.2013.11.4.311.
- [24] K.D. Kim, “The effects of hospice unit practice education on spiritual well-being, attitude to death, and hospice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Asian Oncology Nursing*, Vol. 16, No. 4, pp. 176-184, 2016.
DOI : 10.5388/aon.2016.16.4.176.
- [25] Y.S. Park, and J.H. Kim, “Influence of attitude to death and resilience on terminal care attitude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3, No. 1, pp. 37-47, 2017.
DOI : 10.5977/jkasne.2017.23.1.37.
- [26] M.S. An, and K.J. Lee, “Awareness of good death and attitudes toward terminal care among geriatric hospital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17, No. 3, pp. 122-133, 2014.
DOI : 10.14475/kjhpc.2014.17.3.122.
- [27] K.H. Kim, K.D. Kim, H.S. Byun, and B.Y. Chung, “Spiritual well-being, self esteem, and attitude to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Oncology Nursing*, Vol. 10, No. 1, pp. 1-9, 2010.
- [28] E. Hong, M. Jun, E.S. Park, and E. Ryu, “Death perceptions, attitude towards death, and attitudes to death in oncology nurses”, *Asian Oncology Nursing*, Vol. 13, pp. 265-272, 2013.
DOI : 10.5388/aon.2013.13.4.265
- [29] S.N. Kim, H.J. Kim, and S.O. Choi, “Effects of a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ducation program including meaning in life on attitudes toward end-of-life care and meaning in lif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454-463, 2011.
- [30] Y. Kang, “Development of a Delirium Educational Program for Hospital Nurse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7, No. 3, pp. 70-78, 2019.
DOI : 10.17703/IJACT.2019.7.3.70.